

내달 개관 광주 '제2 정부 통합 전산센터'

정부기관 24곳 3,750개 시스템 운영 '정보 집대성'

정부 기관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광주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문을 연다.

오는 7월 건설교통부·여성가족부·법무부·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 등 24개 정부 기관의 업무관련 서버 2천500대 등 전산 장비 3천750대가 이전, 대한민국의 정보화 전략기로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란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정부 기관마다 따로 운영중인 전산 시스템을 통합, 정보 활용도와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 보안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5년 12월 광주시 서구 풍암동 부지 4천207㎡에 착공, 지난 23일 완공됐다. 모두 5개 동(연면적 3만3천695.82㎡)으로 이뤄졌다. 총 공사비는 880억원.

제2통합전산센터에 들어서는 정보 시스템은 24개 기관 서버 2천500대 등 모두 3천750대.

24개 부처는 건설교통부·농림부·법무부·여성가족부·외교통상부·통일부·기획예산처·검찰청·경찰청·국세청·기상청·특허청·농촌진흥청·문화재청·병무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중소기업청·해양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비상기획위원회·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 오는 7월 7일 예정된 건설교통부와 여성가족부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가 7월 이전한다.

제2통합전산센터, 들어가기 어렵네=광주 통합전산센터는 정보 영화에서 볼 만한 최첨단 보안 장비들로 가득차 있다. 국가의 모든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두뇌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통합전산센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우선 출입문 앞에서는 직원이라도 IC 카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고 방문객도 임시 방문 출입증 없이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들어간 뒤에든 무선인식 시스템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각종 물체에 소형 칩을 부착해 상품의 이동경로·물건 정보 등을 무선 전파로 전송 처리하는 비접촉식 인식 시스템)를 활용, 방문자가 어느 곳에 있는지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들어선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 전경. 24개 정부 기관 3천750대의 정보 시스템을 통합, 운영되면서 정보화 전략기로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IT시장 확대 등 연 3,900억원 경제효과 기대 IC카드→정맥인식→투표 등 최첨단 보안설비

위치 추적이 이뤄진다. 방문하려는 층 외에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 누구든 감시·감독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특히 전산 장비 등이 집종된 전산동 건물에 들어가려면 모두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전자인식기가 IC 카드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면 2차로 출입문 옆에 부착된 인식기에 손등을 대 꺾을을 관통하는 정맥 인식을 거쳐야 한다. 정맥 인식까지 통과했다더라도 끝이 아니다.

이후에도 원통형 특수 광인식 튜브(tube) 시스템을 거쳐야 진입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특수 장치다. 승인받지 못한 자가 설부터 들어왔다가는 꼼짝없이

감하게 된다. 건물 외관에도 보안 시설이 설치돼 있다. 3교대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 외에 건물 주변에는 이중 철책이 세워져 있고 곳곳에 센서 감지가 붙어 있어 훼손하거나 기어오르면 감지된다. 또 밤에도 식별이 가능한 저조도 카메라가 설치됐다. 1층에는 차량 돌진 방지용 구조물과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이외에 군무하는지,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지, 관련 기관이 얼마나 들어서고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많다. 제2통합전산센터 전체 인력 규모는 행정자치부와 24개 기관의 협력이 끝나는 7월 말 확정

된다. 정부통합전산센터 광주시의 예상 인원은 24개 기관 공무원 150여명 등 모두 400명 정도다. 대전 1센터의 경우 공무원 외에 시스템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민간 직원은 230명 정도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보환 기획전략팀장은 "공무원 외에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원은 채용 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 전국에서 우수 인력을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 전산센터의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회사 등이 들어설 가능성도 크다. 광주시는 이같은 점을 들어 생산유발효과 1천605억원, 소득유발효과 307억원, 세수유발효과 59억원 등 총 지역 유발효과가 3천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24개 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광주 제2 통합전산센터 근무 선호도가 워낙 낮아 유망한 인재 유치가 어렵다는 점 등에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KT-KTF, 최고 30% 할인 패키지상품 출시

KT가 결합상품 3종을 7월 중 정부 인가가 나오는데로 출시한다.

KT가 공개한 결합상품은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를 중심으로 KTF의 3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쇼', KT의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보험 등을 묶은 상품.

KT가 출시할 결합상품은 일반 단일 상품의 요금에 비해 '메가패스+쇼'의 경우 메가패스는 5~15%, 쇼는 기본료 10%가 각각 저렴하고, '메가패스+와이브로'는 메가패스 5~15%, 와이브로는 10~20% 각각

가 10% 저렴하고 보험은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결합상품내 메가패스 할인이 최대 15%로 정부통신부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3만원인 라이트 요금에 2만5천500원이 되고, 3년 약정을 해서 15% 약정 할인을 적용받으면 총 30% 저렴한 2만1천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KT의 결합상품에는 일반 유선전화와 케피넷과 이동통신 요금도 기본료 10% 할인이 불과, 실용성도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요금 인하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LG데이콤 "웹하드로 SMS·팩스 보내세요"

LG데이콤은 최근 자사 웹스토리 지 서비스인 웹하드에 문자메시지(SMS)와 팩스 기능을 갖춘 '웹하드 SMS·FAX 서비스'를 출시했다.

'웹하드 SMS·팩스 서비스'는 고객이 웹하드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올리거나 내리거나 같은 기능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SMS와 팩스를 바로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한번에 200명에게 팩스를, 500명에게 SMS를 각각 발송

할 수 있고 발송예약도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SMS 1건 당 최저 15원, 팩스는 국내발송 시 1장 당 50원이다.

웹팩스 이용 방법은 웹하드(www.webhard.co.kr)에 접속해 'FAX 보내기'버튼 클릭 후 'FAX 보내기'창에 보낼 파일을 '파일찾기' 또는 '드래그&드롭'을 해 올려 제목·발신번호·수신번호를 입력 후 발송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Naeyoung' (내영) education center, featuring 'Specialized Courses for Young People' (젊은이들의 특강) and 'Naeyoung Education' (내영교육). Includes contact info and websit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Budeungsan' (대인동삼일부동산) featuring 'Hotel, Restaurant, and Various Commercial Buildings'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CE Tower (주)' (LCE타워(주)) featuring 'Advanced and Best Conditions'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lgongin Jeonggasa' (일가공인중개사) featuring 'Commercial Buildings for Sale' (상가건물 매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anil Jido Pannae (주)' (한일지도판매(주)) featuring '2007 Best Light Building' (2007 최선 광주지번도).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yosung Gongin Jeonggasa' (효성공인중개사) featuring 'Commercial Buildings for Sale' (상가건물 매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Budeungsan' (대지부동산) featuring 'Commercial Buildings for Sale' (상가건물 매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 Homecon Budeungsan Rishiji' (주)홈컨부동산 리서치, featuring 'Best Real Estate' (一生 최대의 쇼팽! 당사는 名品을 취급합니다).